



박종훈



김윤진

장동건

임권택 감독 '천년학' OST 런던심포니와 협연 제작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이 한국 영화음악으로는 최초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영국의 세계적 교향악단인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LSO)와의 협연으로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 크로스오버 뮤지션인 양방언이 제작을 맡은 '천년학'의 OST는 지난달 9~11일 영국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LSO와의 협연으로 학이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웅장한 느낌의 '비상'과 메인 테마곡인 '천년학' 등 모두 18곡을 녹음했다.

세계 5대 교향악단으로 꼽히는 LSO는 각종 클래식 콘서트뿐 아니라 '반지의 제왕'과 '해리 포터' 시리즈, '스타워즈' '타이타닉' 등 대작 영화의 음악을 연주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천년학' OST 녹음 당시 LSO 연주자와 스태프들도 임 감독의 100번째 영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제작사 측은 전했다.

'천년학' OST는 '천년학' 홈페이지(www.beyondtheyears.com)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넘어 세계로' 국내 배우들 해외진출 러시

'국내 무대는 좁다'
국내 영화 배우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배우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꿈하는 할리우드로 향하는 배우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가장 화제를 모은 인물은 첫 할리우드 출연작인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의 촬영을 시작한 배우 전지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촬영 중인 '블러드...'는 동명의 일본 애니메이션이 원작. '와호장룡' 등을 제작한 에드코 필름의 프로듀서 빌 콩, 프랑스 제작자 아벨 나미아스 등이 참여한 작품으로 '늑대의 제국' 등을 만든 크리스 나옹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21일부터 미국 제이콥 벤즈 필름센터에서 열리는 회고전에는 '인정 사정 볼 것 없다' '개임의 법칙' 등 6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필라델피아' '양들의 침투'를 만든 조나단 드미 감독의 사회로 관객들과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미 조나단 드미 감독의 '찰리의 진실' '아메리카 드래곤' 등을 통해 할리우드에 발을 내딛은 박종훈은 현재 또 다른 영화인 '비벌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미국 한인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와 여성 요리비평가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로 최근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미스터리선샤인'의 피터 사레프가 프로듀서를 맡았

전지현 첫 할리우드 출연작 '블러드...' 촬영 시작

제2전성기 박종훈 美서 아시아 배우 최초 회고전

김윤진 맹활약...장동건·이병현도 美 입성 준비

전지현은 이번 작품에서 벤파이어 헌터 사야 역을 맡아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야는 마지막 남은 오리지널 벤파이어로 인간을 학살하는 변종 벤파이어를 제거해야 하는 인물이다.

할리우드 진출과 함께 이름을 '자아나 전'으로 바꾼 전지현은 이 작품에서 미국 인기 드라마 시리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했던 앤리슨 밀러와 호흡을 맞춘다. 개봉은 2008년 중순.

이준이 감독의 '라디오 스토'로 청룡영화제 낭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는 박종훈은 미국에서 아시아 배우 최초로 회고전을 갖는다.

미국 인기 TV 시리즈 '로스트'로 미국에서 인지도를 높인 김윤진의 활약도 눈에 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김윤진의 경우 해외 진출의 무기인 '영어'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최대 강점.

'로스트'가 골든 글로브상 등을 수상하면서 데드 카펫에도 섰던 김윤진은 바비와 윌터스가 진행하는 토크쇼 출연, '맥심' '아레나' 등 미국 유명 잡지 화보 촬영 등으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그밖에 장동건과 이병현 등 톱스타들도 할리우드 진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첫 할리우드 출연작인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의 촬영을 시작한 배우 전지현. 이번 작품에서 벤파이어 헌터 사야 역을 맡아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목! 이 영화

'이장과 군수'

'재밌는 영화' '선생 김봉두' '여선생 VS 여제자' 등 코미디 영화에서 장기 를 발휘해온 장규성 감독과 코미디 연기의 일인자 차승원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평화롭고 한적한 충청도 산골마을

재미에 감동까지...옥심쟁이 노총각 이장

강덕군 산촌 2리 주민들은 이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으로 인해 새로운 이장을 뽑게 된다.

마을 발전을 위해 젊은 이장을 뽑자는 마을 어르신들의 권리로 단독 출마한 평범한 시골 노총각 조춘삼은 열렬하게 최연소 이장으로 선출된다. 이장 감투에 쑥스러워 하던 춘삼은 어느날

어린시절 자신의 밑에서 빌릴 대리 노대규가 군수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기심에 사로잡힌다.

결국 대규는 최연소 군수가 되고 과거의 만년 반장과 부반장에서 이장과 군수라는 뒤바뀐 위치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대립하며 서로를 견제하는데……. '왕의 남자' '타짜' 등에 서 맛깔스런 조연이었던 유해진의 첫 주연작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전원주의 코믹 연기도 일품이다. <12세 관람가>



서 맛깔스런 조연이었던 유해진의 첫 주연작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전원주의 코믹 연기도 일품이다.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LU-TESOL

www.aluniversity.com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동아경찰영어

동아외국어학원

토익900점 만점 大특강

TOEIC강좌 퍼레이드

사무스페이 한의대

www.samsu.ac.kr

시계·제사양을 차려드립니다



동아한과

061-383-8283

